

전남 '브랜드 왕국' ... 10년간 등록 건수 최다

17개 광역단체 3520개중 488개 차지 대부분 농수산물 특산물·공공사업 홍보

전남도가 지역 특산물과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난 10년간 브랜드 등록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와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5~2014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등록된 브랜드(업무표장·서비스표)는 총 3520개였다. 이 가운데 전남도가 48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458개)와 경북도(443개), 강원도(374개), 충남도(294개), 전북도(258개), 서울시(247개), 경남도(244개) 등이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

에서 출원한 브랜드까지 포함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전남도가 직접 출원해 등록된 브랜드는 193건으로 대부분 농수산물 특산물과 공공사업 홍보를 위해 붙인 것이다. 만월(막걸리 공동 브랜드), 굴비(여천가(양식 참조기 가공굴비 브랜드), 청춘수(전남 고로쇠수액 통합 브랜드)가 특산물 브랜드이고 남도민박, 새꿈도시(은퇴자도시), 솔라시도(J프로젝트)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관광 및 공공사업 관련 브랜드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2006년), 통합의학박람회(2010년)는 나주와 장흥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맞춰 브랜드를 등록했다.



전남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인 '녹색의 땅 전남'은 박준영지사 취임 당시 등록했고 민선 6기 이낙연지사가 표방한 '생명의 땅 전남'은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일선 시군에선 나주시가 경북 영주시와 손잡고 사과와 배를 섞어 판매하는 '홍동백서'가 절묘한 브랜드 이름으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답양은 '대숲맑은 답양'이란 브랜드로 청정 이미지 구축에 성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브랜드 수가 많다는

것은 소비자와 소통하려는 의지와 홍보 마인드가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브랜드 파워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이제부터는 파워 브랜드 구축에도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중앙부처에선 738개의 브랜드를 등록했다. 국방부가 73개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65개), 미래창조과학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각 46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각 35개), 보건복지부(31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정부가 나서라”

강운태 명예위원장 촉구

강운태 2015광주유니버시아드 명예위원장(전 광주시장)은 오는 7월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강 명예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 당국자가 남북 단일팀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광주 U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남북 관계 및 국민정서와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강 명예위원장은 “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은 '2015광주 U대회지원법(33조)'에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2013년 7월 세계대학스포츠포럼(FISU) 총회에서 공식 승인한 바 있다”면서 “특히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단일팀 구성을 위해 관계자를 북한에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화해를 해야 할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직접 나서 여자축구, 탁구 등 일부 종목이라도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광주와 조직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안보정책자문위원 위촉

윤정현 광주시장은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군(軍) 관련 현안 업무를 자문할 안보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박기주 예비역 소장 등 9명을 위촉했다. <광주시 제공>

이 조례안에는 광주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과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 목적을 담고 있다.

광산구, 구청장 조카 불법건축물 수사 놓고 '물타기' 빈축

광주 광산구가 최근 경찰의 불법 건축물 사용허가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물타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10일 민형배 구청장 조카인 민모(45) 목사의 부락을 받고 건축행정시스템을 조작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사용허가를 내준 공무원 A(50)씨와 민씨를 공문서 위조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민씨가 불법 증축된 건물을 지역아동센터로 인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발표했다.

광산구는 경찰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지

난 13일 공보실을 통해 수사가 분질을 왜곡하는 등 민정 조카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잘못 결론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광산구는 심지어 관련 공무원이 소신껏 행정을 집행한 것으로 광주시의 감사 결과까지 거론하며 보조금 집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조상현 광산구 의원이 구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경찰이 수사로 확인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문제삼아 조 의원을 국가인권위와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발주 대형공사 시민이 직접 감시

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 모집

광주시가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를 시민이 직접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광주시는 16일 “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은 4월부터 2년간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자문도 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광주시 발주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대형건설공사 예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기술자문, 건설분야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의견 개진 등이다.

모집분야는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전

기, 소방, 조경분야 등 7개 분야 100명으로, 참가자격은 건설분야 박사 또는 기술사, 건축사 자격 등을 소지한 자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실무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kor062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장석 광주시 건설행정과장은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시민건설기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 정가

이정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1)의원은 16일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부상 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 등 공사상 소방공무



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경님, 자율방범대 지원 규정 근거 마련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 4)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위원장은 “현재 지역에서 활동하는 1800여명에 이르는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예방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며, 지역사회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와 달리 직접적인 법률근거 규정이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조례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전진숙(북구 4) 의원은 16일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이념을 바탕으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과 교육감



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어린이·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공간 확보 ▲권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한 조치 ▲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조세철, 보호수·노거수 보호·관리 규정 마련

광주시의회 조세철(동구 2) 의원은 16일 '광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광주시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를 위한 사항 규정과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유지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손괴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수세유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 실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반재신,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 발의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 1)의원은 16일 '도시재생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주민이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근거를 만들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사업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설치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1위 최고의 새마을금고

2015 광주시 골목상권 정책자금대출 출시!!

광주광역시 ♥ 서양새마을금고 ♥ 광주신용보증재단 = 협약기금

각종 도·소매업/음식점 주점업/서비스업 등

식당, 학원, 노래방, 당구장, 카센터, 사진관, 컴퓨터수리, 세탁소, 세차장, 미용실, 피부관리, 방앗간, 스포츠시설, PC방, 전통시장상인 등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신분증

연 이 율 1.25 ~ 1.4%

대출기간 3년/5년

최 고 2천만원

※ 36억 선착순 접수 (기존 대출자도 가능)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